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8년도 표어 ◎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고후 5:17)

◎ 생활지침 ◎

1. 경건
2. 사랑
3. 절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여름특집

한국 사회의 도덕적 위기와 교회의 책임 ①

“무엇이 이 사회의 도덕을 위기로 몰아갔나?”

●...우리 사회는 현재 극심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계기는 경제적 부문에서 누적됐던 문제가 터져나오면서 촉발됐다. 그러나 그 뿌리는 경제적 모순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우리 사회와 교회를 되돌아 보는 기회를 갖고자 본지는 여름특집으로 한국 사회의 도덕적 위기와 교회의 책임에 관한 시리즈를 게재한다. ...●
(내용은 이종윤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세미나에서 행한 강연을 정리한 것임)

전통적으로 존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통하던 생의 양식은 점차 퇴색되어 가고 이 양식의 변화는 우리 사고와 생활 가치관을 바꾸어 놓고 있다.

오늘의 사회를 진단해 보자. 지금 나라의 안팎을 흔들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은 결코 우연한 것들이 아니며 심화된 한국병들이 표출된 것이다. 병든 사회에는 반드시 병의 원인이 있을 것이고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무엇이 이 사회의 도덕을 이토록 위기로 몰아갔나?

1. 성급(性急)한 것이 병이다.

우리는 이상과 현실의 간격을 좁히는 일에 너무 성급했다. 인간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고 최대한의 성과를 짧은 시간 내에 올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바람직한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빨리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다. 한국인은 모든 것이 급하다. 버스, 지하철, 택시 심지어 승강기를 탈 때에도 조급해서 빨리 빨리 모두가 급하다. 제도와 행정도 급하게 계획하고 서둘러 발표한다. 승진도 성공도 빨리 해야 하고 횡단보도의 빨간불이 꺼지기도 전에 아슬아슬하게 서두는 사람이나 자동차도 모두가 급하다. 한국인의 습성 가운데 성급함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사회적 불안과 한탕주의와 같은 비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2. 문제는 남을 제쳐 놓고 내가 먼저 빨리 하려는 데 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입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 먼저 앞서 가겠다는 심리가 있는 한 공동도덕은 지켜질 수가 없다. 성급함은 졸속을 낳고 졸속은 시행착오와 낭비를 자초한다. 이같은 한국인은 부지런한 민족이라는 칭찬과 함께 교통사고 세계 제일이라는 불명예도 갖고 있다. 고층 건물은 지을 줄 알면서 교통질서라든가 휴지를 쓰레기 통에 버리는 정도의 작은 일은 할 줄 모르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시민이 되어가고 있다. 공동도덕심이 매우 약하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다. 눈가림만하고 체면치레식 삶의 양식이 상식화되고 있는 사회의 미래는 암담할 뿐이다.

3. 한국인처럼 최고, 최대, 최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교육열이 높고 진취적 기상을 가진 것을 탓하자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최고 최대의 기준이 문제다. 허황되고 외형적인 기준을 세우고 유명도라는 자(尺)로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평가하려 한다.

어느 학교, 어느 상품, 어떤 사람이 유명한가를 두고 일류의 가치를 정한다. 매스컴에 몇 번 오르면 전문가나 된 양 유명세를 타고 빠른 노력을 없이 사이비 대가 행세를 할 수 있는 사회다. 일류병을 앓고 있으면서 삼류사회를 만들고 있지 않은가?

4. 우리는 정(情)이 지나치게 많은 것이 문제다.

인간에게 따뜻한 정이 있다는 것은 이성을 강조하고 공리주의적인 서구 사람들에 비하면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정도를 넘어 정실이 짝트고 공과 사가 분명치 않게 될 때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 또한 집단의 따뜻한 정적 유대가 타 집단에 대한 중용과 멸시를 가져와 집단 이기주의, 지역감정, 파벌주의, 계층간의 반목을 일

으킨다. 정에 약한 사람이 모인 사회는 합리적 사고와 판단을 하기 어렵다. 또한 그런 사람들은 정직한 사회를 만들기도 어렵다.

5. 대중 매체의 감쪽쇼와 극적 기대감의 팽배 또한 이 사회의 병리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무서운 범죄 사건의 뒷이야기나 입에 오르내리기도 부끄러운 선정적 이야기들을 다루는 매스컴들은 삼류잡지와 대동소이하다. 대중의 호기심에만 야합하고 있지 않은가? 신문과 방송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하지만 극적 사건을 만들기에 급급한 나머지 세련미보다는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려는 상업주의가 오늘의 사회를 더욱 혼탁하게 하고 있다.

6. 권위의 실추와 불신풍조는 이 사회를 혼란으로 빠뜨리는 주범 중의 하나다.

관료적 권위주의는 무너져야 한다. 그러나 스승의 권위, 법관의 권위, 학자의 권위, 경영자의 권위가 다 무너진 세상이 된 것은 참으로 서글픈 일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현대인은 중심을 상실하였고 방향감각이나 가치관도 상실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독버섯처럼 만연되고 있는 불신 풍조는 창조적 활동을 저해하며 진취적 기풍을 가로막는 암적 요소다.

7. 오늘의 사회를 경쟁이라는 말로 대표한다. 그것이 문제다.

세계화, 국제화 등의 요구로 우리 사회에는 무한 경쟁시대가 도래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함이라는 명분 하에 정당한 수단과 방법이 무시되며 따라서 폭력도 불사한다는 무도덕, 탈도덕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물질만능주의, 출세제일주의의 가치관은 모두 경쟁사회의 사생아들이다. 특히 경쟁에서 이겼다고 자처하는 정치적, 경제적 지도층의 부도덕성이 결국 사회 전체의 도덕적 위기를 초래했다. 따라서 경쟁보다는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평등화, 사회적 복지화를 통해 도덕적 사회 구현을 구현해야 한다. 물론 거기에는 구조적인 변혁과 개인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사야 강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이사야 9장 1-9절

앗수르의 침략을 받고 어둠 가운데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되시는 한 아기의 출생과 그의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1. 어둠이 걷힐 것이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흑암으로 고통을 당하지만 그 어둠은 계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버림받은 땅이 다시 존귀함을 받게 되기 때문이며 그 영광의 때가 오게 되면 그것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1절). 이스라엘의 죄가 국가적 형벌로 그 땅에 어둠을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빛의 하나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위를 덮은 어둠을 어느 날 추방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으로 형벌도 받지만 또한 존귀와 영광도 받습니다. 우리가 받는 영광은 그가 친히 우리 중에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2. 빛이 비칠 것이다

갈릴리 거민들은 어둠에 거하였습니다. 앗수르의 침공으로 그 어둠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둠에 살던 이들에게 큰 빛이 나타났습니다. 재난으로 어두워진 곳에서 백성들은 평화와 축복의 빛을 본 것입니다. 죽음의 어둠에서 그들은 생명의 빛을 보았습니다. 무지의 어둠에서 지식의 빛을 보았고 죄의 어둠에서 구원의 빛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비친 빛은 그리스도가 가버나움에 와서 그 곳에 거하실 때 나타났습니다(마 4:12-17). 죄의 어둠도 그 빛이 와야만 쫓겨갑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 빛은 어둠에 처한 인간의 마음에서 산출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가 가져다가 준 모든 축복은 한 마디로 '빛'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 나라가 창대할 것이다

빛이 어둠에 비취는 축복은 빛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고 약속하신 것처럼 이방인들도 참 이스라엘이 되어 그 수가 점차

커질 것입니다. "임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사 54:1). 나라가 창대함으로 기쁨은 커지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추수하는 기쁨과 전리

기서 말한 '한 아기' 는 7장에서 예언된 것입니다.

그러면 한 아기는 누구입니까? 그는 기묘자(Wonder)입니다. 기묘자란 메시아의 놀라운 이름으로 모사(Counselor)라는 이름과 더불어 놀라운 모사(Wonderful counselor)라는 의미가 됩니다. 기묘자라는 이름은 하나님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켜짐이 사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사 9:1-7)

이종윤 목사



품을 나누는 승전장군의 기쁨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큰 기쁨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4. 선지자가 백성에게 제시하는 기쁨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기쁨의 이유를 세 가지 제시했습니다.

선지자가 제시하는 큰 기쁨이란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멍에 아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앗수르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연고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을 물리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의 채찍과 막대기를 꺾으시고 멍에를 거두셨습니다.

두 번째의 큰 기쁨은 승리가 온 후 완전한 평화가 왔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때에는 군인들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져 불태우게 됩니다. 한 아기가 나실 때 모든 전쟁과 무기는 사라지게 됩니다. 평강의 왕이신 메시아가 자기 백성에게 평화를 가져오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한 아기가 났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한 아기의 탄생을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

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기적적으로 화해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의 노를 푸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기적의 사람입니다.

그는 모사입니다. 메시아는 사람이 갖지 못한 지혜를 가지고 다윗의 보좌에 앉으사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Mighty God)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Everlasting Father)이십니다.

그는 평강의 왕(Prince of Peace)이십니다. 메시아는 초월성과 지혜, 능력, 영원함, 평강의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 정사의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7절).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둠 가운데서 건지신 한 아기,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시는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즐거운 여름학교 믿음의 동산"

●여름성경학교를 마치고●

"튼튼체조 · 사랑열매... 풍성한 잔치였어요"

유치부

윤도희(유치부 교사)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언제나 함께 계시요." 유치부의 여름 성경학교는 부모님들과 한자리에서 개회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다. 이종운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5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해 주셨다.

선생님들은 그동안 참 정성껏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해 왔다. 아이들이 특별히 성경학습 시간에 두 귀를 쫑긋 세우고 귀 기울여 듣는 모습을 보면서 그간 열심히 준비한 보람을 느끼기도 했다.

점심식사 시간에는 유치부 학부모들과 권사님들이 맛있는 음식을 마련해 주신 덕분에 그릇을 거뜬히 비우는 아이들이 많았다.

과자 따먹기, 장애물 경기, 풍선 터뜨리기 등 신나는 놀이 시간도 있었는데 아이들은 우렁차게 응원하며 질서있게 행동하는 의젓함을 보였다.

센터학습에선 "예수님의 어린 제자가 되겠어요" 하고 예수님, 부모님, 선생님 앞에서 약속을 하는 귀중한 시간도 가졌다.

깃발을 만들어 튼튼체조를 했는데 어린이들뿐 아니라 선생님, 부모님들도 깃발을 들고 우리의 깃발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나게 뛰었다.

폐회예배를 드리면서 유치부 친구들은 나무그림에 사랑 · 기도 · 전도 · 찬양의 열매들을 붙이면서 "사랑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찬양하며 살겠어요" 하고 결단하기도 했다.

선생님들이 사진들을 만들어 여름성경학교에서의 사진을 끼워 기념품으로 나눠 주었는데 아마도 지금쯤은 유치부 친구들 방에 예쁘게 걸려 있을 것이다.

이번 성경학교 주제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무사히 풍성한 잔치를 마칠 수 있었음이 감사하다. 날씨가 더운데 식사준비하시느라 땀 흘리신 분들, 3일 간 아이들과 함께 해주신 부모님들, 귀한 방학기간을 할애해 애써 준 대학부 언니 오빠들... 아무튼 감사한 분들과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여름성경학교였다.

7월의 한 중간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사랑부 성경학교가 열렸다. "사-사-선생나-임 아-안녕하세요-?"

자신의 몸 하나도 제대로 가누기 힘든 아이들이었지만 표

정은 늘 밝고 환하기

만 하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

노라면 세상

에서 만들어

가는 고민과

근심들이 얼

마나 사치스러

운가를 생각하게

되고 부끄러움에 고

개가 숙여지곤 한다.

설교시간에는 진지했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에 아이들은 기뻐했다. 더러는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할 수 없는 이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그들의 가슴 속에도 울려 퍼졌으리라!

성경학교의 학습 코너들은 찬양, 음식, 이야기, 말씀... 등 여러 코너들로 진행되었다. 그중에서도 그룹찬양 시간에는 여러 팀이 나와 찬양을 했는데 정확치 못한 발음이지만 기쁨에 넘쳐 최고의 정성을 다해 부르는 찬양의 순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이야기코너에서는 '향기로운 백합'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졌다. 어느 숲속에 무지개 빛 아름다운 색을 지닌 꽃이 있었다. 다만 이 꽃에는 향기가 없었다. 어느날 숲속의 꽃들이 찾아와 색을 나누어 주기 원했다. 무지개 빛 꽃

은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물 속

에 비친 자신

의 모습을 보

고 슬퍼질 수

밖에 없었다.

색을 다 나누

어 주고 나니 몸

이 하얗게 되고 만

것이다. 그때 꽃과 나비가

날아와 환하고 아름다운 빛과 향기를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후에 그 꽃은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고 모두 이 꽃을 백합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스스로를 아낌없이 비워내는 이런 겸손한 모습들이야말로 서 울교회 사랑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모습들이라고 생각된다. 사랑하고 기쁨을 나누어주는 데 필요한 것은 결코 결모습이 아니라는 것은 그들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을런지 모른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인 것 같다.

사랑부

향기로운 백합처럼

송미영(사랑부 교사)

유년부

피곤을 삼켜버린 기쁨

김희정(유년부 교사)

참으로 벅찬 마음입니다. 비록 힘은 들고 몸은 피곤한 일이지만 하면 할수록 기쁨 마음을 갖게 되는 일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새해 첫 주에 새로 만난 아이들은 새로운 마음과 설렘으로 가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

들이 저를 조금씩 힘들게 하고 저는 어떻게 하면 예배의 경건함을 가르침과 동시에 친교의 기쁨을 안겨줄 수 있을지를 걱정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3일 간의 여름성경학교를 마치고 난 지금 힘은 좀 들지만 허탈감보다는

다시 채워지고 잘 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가득차게 되었습니다.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열린 유년부 성경학교의 첫째날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을, 둘째날은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 셋째날은 주님께 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있어야 하는지에 대

해 각각 말씀을 듣고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저는 매주 아이들에게서 감동을 받은 하지만 여름성경학교를 마치며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라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며 다시 한번 제 믿음에 도전을 받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들이 또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4면에 계속)

초등부

여름성경학교에 참가하고보니

“예수님은 항상 함께 계셨어요”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주제의 여름성경학교! 개회예배 때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항상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지금 이후로 예수님과 함께 할 여러 시간들을 계획해 보기도 했다.

이번 성경학교에서 세 가지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 첫째는 ‘조별성구’으로 이 순서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더욱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협동심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커졌다. 둘째는 ‘순교기념관 견학’으로 마음이 절로 경건해졌고 목숨까지 내어놓고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보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주님을 섬기기 전에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습센터’에서는 분반공부때 배운 성경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 내 겉모습은 변한 것이 없지만 내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고 앞으로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더욱 많은 대화를 하리라고 결심했다.(김보연)

늘 따분하게만 생각했던 기도에 대해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고 기도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인물들이 모두 하나님께 기도드리 지혜도 얻고, 힘을 얻고... 그간 기도하기 싫어하던 마음

조차 기도로 싹 없애고 이제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겠다.(예상영)

찬송과 율동이 많았던 여름성경학교였다. 밥을 먹을 때마다 요절을 외우니 모르는 것도 알게 되어 흥미로웠다. 달란트시장을 통해 주제인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예수님을 더 알게 된 것 같다. 예수님을 닮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하는 나쁜 행동을 하지 않겠다. 조별로 행동하면서 협동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학교에 가서도 성경학교에서처럼만 지낸다면 친구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성경학교가 끝나서 아쉽다. 겨울성경학교가 기다려진다.(박재민)

이번 성경학교에서 귀한 달란트를 새로 얻었다. 바로 ‘친구’라는 달란트였다. 또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신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전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과연 들어주시는지에 대해 의심했었는데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새롭고 존귀하신분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또 이렇게 결심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씩 읽으며 하나님을 만나기로.(유현주)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친구도 사귀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갖게 되었다. 비디오를 통해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도 알았고 찬양시간은 매우 즐거웠다. 기도시간에는 선생님들의 열심있는 기도를 들을 수 있었고 더러 울며 기도하시는 선생님도 보았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섬기시기 때문인 것 같았다. 나도 교회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아이가 되기로 결심했다. 보람있는 시간들이었다.(강혜림)

농촌전도대 봉사 D-16!

- ▶기간 : 8월 11일 - 14일
- ▶장소 : 충남 서천 청운교회
- ▶분야 : 전도, 의료·미용, 교육(성경학교)
- ▶신청 : 에스더·루디아 전도회

사무국에서는 봉사에 필요한 전도용 물품, 함께 나눌 생필품 등을 모으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새가족 여러분!

오늘 찬양예배 시 7월 새가족환영회

* 7월의 새가족 *

안명옥 김영희 이현정 장혜숙 안혜경
정천수 윤여민 유상림 이상순 허영무
장응희 안성숙 김이진 김현미 이민호
김운석 황병완 박창수 지수홍 이임선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

(3면에서 계속) 셋째날 양재시민의 숲에서 조그만 캠프를 열었습니다. 각각 다른 내용의 10가지 캠프를 통과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끝날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 왕자님·공주님’의 표식으로 면류관을 쓰는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각 캠프에는 교사들이 서서 지도를 했습니다. 제가 맡았던 캠프는 자신이 회개할 내용을 적고 기도를 해야

통과할 수 있었는데 평소 교회에서는 쑥스러워하던 아이들도 기도를 잘하고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던 아이들이 각듯이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과 교사들이 하나가 되었고 신뢰가 쌓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럽고 믿음직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는 교사가 되어 아이들이 말씀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해서 유

년부가 비록 어리고 작지만 서울 교회의 알차고 든든한 주춧돌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게 보이지 않게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 이종은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X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 오늘 점심식사는 이보우집사·서옥덕 권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교회학교의 여름행사가 결실할 수 있도록
2. 새가족의 신앙성숙과 교회생활 적응을 위해
3. 시민대학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